

영·호남인에 대한 타지역인의 인상형성

홍 성 열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국가의 위기로 까지 해석되고 있는 영호남갈등은 더이상 두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타 지역에 비해서 영남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더 많은 실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공평이론에 근거해서 영남지역 이외의 지역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될 몫을 영남인이 더 가져 갔다고 생각하고 영남인들에 대해서 부정적 인상을 형성할 것이다. Asch(1946)가 중심 효과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인상형성의 자극특성과 반응특성을 그대로 강원대학생에게 집단 검사하여서 비영호남인의 영호남인에 대한 인상형성을 조사하였다. 영남인들은 호남인들과 같이 다정하다는 자극특성조건에서 신뢰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차갑다는 특성조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형성케 하였다.

영호남인의 감정적 대립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악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양지역간의 대립은 평상시에는 문계시 되지 않고 또한 존재하는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 있으나, 지역간 감정적 표출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훨씬 더 두드러지고 문제시 된다. 그러나 양지역간의 감정해소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8년이전 까지만 해도 없었다. 사실상 역사 이래로 양지역간의 갈등이 극에 이른 것은 아마도 1987년 대통령선거 때였을 것이며 이런 양상은 1992년 선거에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1987년 양지역간 갈등은 “국가의 위기”라고 까지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기의식에서 1988년 1월 25일, 국민화합 분과위원회는 2시간여에 걸쳐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안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대다수의 국민이 ‘국가적 위기’로까지 느꼈던 지역감정에 대해서 적어도 공식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처음있었던 것이다(월간 중앙, 1988년 2월호). 12대 대통령 선거(1987년 12월 16

일)와 13대 국회의원 선거(1988년 4월 26일)를 통해서 지역감정의 극대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1987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광주에서 93.8%의 지지를 얻었고,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2.6%와 9.1%를 얻었다. 한편, 김영삼과 노태우 후보는 영남지역에서 90%이상 지지를 얻었으며, 김영삼 후보는 호남에서 1%를 얻었다. 그러나 대구와 부산에 거주하는 호남인구 2%와 8.3%, 그리고 호남에 거주하는 영남인 1%를 감안한다면 거의 모든 영남인은 노태우나 김영삼 후보를 그리고 호남인은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지역간 갈등의 확실한 근원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역사성을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삼국시대 이전에서 부터 지역간 대립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고희화(1989, p. 25)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감정의 유래가 1) 삼국시대의 국가관, 영토확장 또는 통합과정, 2) 삼국시대 훨씬 이전, 3) 고려 태조의 호남출신 등용제한, 4) 조선 선조 때 전주에서 일어난 정여립의 난, 그리고 5) 택리지를 펴

낸 이증환과 실학자 안정복 등의 풍수지리설이나 도참설 등 다양하다". 국민 모두가 양지역간 대립을 국가의 위기로 해석하고 여러가지 해소방안을 제시하지만 그러한 감정이 형성되어온 기간을 고려할 때, 지역감정이 단시일내에 없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박용남(1991)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23.2%가 영호남의 갈등은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 갈등형성 시기를 아주 오래 전으로 보고 있어서 갈등해소에 더욱 어려움을 갖게 한다. 더욱이 "1970년대를 거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개발과 정치권력의 독점과정이 호남과 영남과의 적대감정과 지역편견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고홍화, 1989년 p.27).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을 호남과 비호남의 양대립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으나(예; 민경환, 1988), 이제 더 이상 영남과 호남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 고위관료의 지역출신을 보면 제1공화국 시절 경상도 출신자가 18.8%, 전라도 6.2%, 서울 19.7%, 경기 13.5%였으나, 제3·4공화국에서는 경상 30.1%, 전라 13.2%, 서울 10.4%, 경기 3.7%였으며, 제5공화국시절에는 경상도 43.6%, 전라도 9.6%, 서울 10.3%, 그리고 경기 7.7%였다(김만홍, 1987, pp.22-23). 경상도 출신자는 다른 지역사람과 비교할 때, 18.8%에서 43.6%로 급등한 결과를 갖는다. 또한 서울시 저소득층의 출신지역분포(세대수기준)를 보면, 경상도 12.5%, 전라도 28.3%, 서울·경기 25.3%, 충청도 17.3%였다(서울특별시, 1979). 경상도 출신자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저소득층이 적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지역별 장성구성비/인구구성비를 보면, 경상도 3.0%, 전라도 1.55%,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1.1%였다(월간중앙, 1988).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출생지를 보면, 경상도 35.4%, 전라도 7.8%, 서울과 경기 27.0%로 나타났다(신동아, 1988). 통계에서 보듯이 전라도 지역인들이 경상도 지역인들 보다 권력층이나 경제권에서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경상도인들이 호남인에 비교해서 높은 율을 갖는 것이 호남인의 몫을 차지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타지역인들의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경상도 출신이 18.8%, 30.1%, 그리고 43.

6%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전라도 출신은 6.2%, 13.2%, 그리고 9.6%, 서울 출신은 19.7%, 10.4%, 또한 10.3%, 경기출신은 13.5%, 3.7%, 그리고 7.7%이므로 영남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지하는 율이 낮아지거나 담보상태에 있었다. 즉, 영남지역 이외의 지역은 영남지역의 큰 증가로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영남, 호남 그리고 비영호남의 3지역의 대립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가정도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남인, 호남인, 그리고 비영호남인들이 서로 다른 지역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형성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즉 비영호남인이 두지역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다른 연구들처럼 영남과 호남에 국한된 감정대립인지, 아니면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의 표현인지를 알아 볼 것이다. 갈등이란 원하는 자원을 얻는 것과 다른 집단이 그들의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 흔히 않은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인한 계층간의 투쟁(Marx & Engel, 1947), 반란(Gurr, 1970), 그리고 문화와 사회 구조의 발달(Simmel, 1955)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영호남의 지역간 갈등은 계층간의 투쟁이나 반란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지역간의 반목은 선거시에 두드러지게 표출되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타인집단(outgroup)의 단순한 존재에 대한 단순한 의식이 집단간 갈등 혹은 집단내의 분별적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Tajfel & Turner, 1979, p.38). 그래서 집단간 갈등은 거리의 갯들, 종족간의 불화, 산업조직의 불화 등 모든 사회조직에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영남인과 호남인 사이의 지역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상한 시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지역감정을 보아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으며 국가의 위기의식으로 까지 몰고가 버렸다. 이러한 반목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로 간주되지만, 또다른 문제는 영·호남인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의 사회현상에 대한 지각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정부 고위관료, 인구구성비 대 장성구성비, 정부

투자기관의 임원구성비 등을 볼 때, “영남지역 편중과 호남지역 소외는 실제로 매우 심한 양상을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고흥화, 1989, p.113)고 하지만 비영호남 지역 또한 호남지역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상호 갈등을 우리나라 지역갈등의 전부로 알고 그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 두지역 이외의 사람들도 영남지역의 지나친 편중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공평이론(equity; 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에 비추어 볼 때, 영남지역의 편중은 호남지역은 물론이고 비영호남 지역인들에게도 불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비영호남 지역은 자신의 몫을 차지하지 못한 불만을 영남지역으로 돌릴 것으로 생각된다.

편당형성이론(coalition formation) 중에서 Gamson(1961)의 최소자원이론(minimum resource theory)에 의하면, 투표율 2-7-8을 갖는 세사람의 경우에 이득분할은 공평규범을 따른다. 그래서 2는 8보다 오히려 7과 제휴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비추어서 정확한 숫자표현은 아닐지라도 2는 호남인, 7은 비영호남인, 그리고 8은 영남인으로 비유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영호남인은 영남인에 대해서 보다는 오히려 호남인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나 문헌에서 보면 호남인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얻었다고 보여진다.

김태오(1950)가 지적한 것처럼 경상도민은 沈着, 實行, 剛, 그리고 果斷으로 기술되었으며, 전라도민에 대해서는 細心, 周密, 優柔不斷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 호남인이 영남인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왔음을 본다. 일반적으로 각 지방민들의 특성을 기술할 때, 전라도 사람은 교활하며 영남인은 소박하고 성실하다고 한다(이진숙, 1959). 고흥화의 연구(1989)에서 결혼상대자의 출생지 선호순을 보면 서울 7.5%, 경상도 22.83%, 충청도 9.83%이며,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순으로는 전라도가 56.17%, 제주도 13.67%, 그리고 경상도가 9.67%였다. 또한 김진국(1977)의 연구에서도 영남 사람은 대체로 시끄럽고 의리있고, 결단력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호남인은 대체로 생활력이 강하고

타산적이고, 야심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호남 사람들에 비하여 영남 사람들이 좋게 평가되고 있음을 본다. 영남인, 충청도인, 호남인, 그리고 서울출신을 호·오의 평가기준으로 비교한 연구(김진국, 1984)에서 보면, 호남인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인들은 호남인들을 아주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서 지역 감정의 문제는 영호남간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인들과 비호남인들의 문제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단홍(1987)의 연구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지역경제는 서울, 경기, 영남권 등에 비해서 여타지역의 침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가 지역간 불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신동아(1988, 1월호, pp.257-258)에서 “영남세가 점령한 서울시”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서울, 경기, 영남권의 발전이 있어 왔지만 그 발전지역의 실세는 결국 영남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영남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국가의 위기로까지 표현되었던 1987년 대통령 선거와 1988년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좋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했듯이 국가위기를 몰고 올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감정의 원인이 영남인과 호남인의 대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양지역이 상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 양지역 이외의 사람들이 영호남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호남지역 사람과 비영호남 지역사람들이 같은 처지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다 하더라도 서로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보여 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Gamson(1961)이 주장하는 2-7-8의 투표권을 갖는 세사람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2와 7이 제휴를 한다해도 이득관계에서 편의상 맺게 되는 일시적 제휴이니까 7에 대한 2의 본래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영남인과 호남인과의 감정대립은 물론이고 영남인에 대한 비영호남인의 감정대립 또한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

연구도구

S. Asch(1946)가 중심효과(central effect)를 알아보고자 사용하였던 인상형성 형용사 A와 B form에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을 첨가하여 모두 6개의 형용사 자극특성군을 만들었다. 즉, Asch의 A form과 B form을 그대로 사용해서 2조건, 그리고 그 두 조건에다가 경상도와 전라도인을 조합해서 4조건, 모두 6조건을 만들었다.

Asch가 이용한 A form과 B form,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6개의 형용사 자극어군은 다음과 같다.

A form :

머리가 좋고(intelligent) : 재주있고(skillful) : 부지런하고(industrious) : 따뜻하고(warm) : 완고하고(determined) : 실제적이고(practical) : 조심성 있는(cautious)

B form :

머리가 좋고(intelligent) : 재주있고(skillful) : 부지런하고(industrious) : 차갑고(cold) : 완고하고(determined) : 실제적이고(practical) : 조심성 있는(cautious)

자극조건

- A라는 사람은 머리가 좋고, 재주있고, 부지런하고, 따뜻하고, 완고하고, 실제적이고, 조심성있는 사람이다.
- A라는 사람은 머리가 좋고, 재주있고, 부지런하고, 차갑고, 완고하고, 실제적이고, 조심성있는 사람이다.
- A라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며, 머리가 좋고, 재주있고, 부지런하고, 따뜻하고, 완고하고, 실제적이고, 조심성있는 사람이다.
- A라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며, 머리가 좋고, 재주있고, 부지런하고, 차갑고, 완고하고, 실제적이고, 조심성있는 사람이다.
- A라는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며, 머리가 좋고, 재주있고, 부지런하고, 따뜻하고, 완고하고, 실제적이고, 조심성있는 사람이다.
- A라는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며, 머리가 좋고, 재

주있고, 부지런하고, 차갑고, 완고하고 실제적이고, 조심성있는 사람이다.

반응조건

각 피험자는 위의 6조건 중에서 어느 한 조건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은 Likert type 7점 척도 상에서 Asch가 사용했던 형용사: 즉, 관대한(generous), 현명한(wise), 행복한(happy)¹⁾, 성질이 좋은(good-nature), 신뢰로운(reliable), 그리고 중요한(important)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를 지적토록 하였다.

피험자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영남인과 호남인 양자의 관계를 다루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남인과 호남인에 대한 타지역의 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영남인이거나 호남인은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피험자수는 모두 291명이었으나 경상도와 전라도 피험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268명이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조건별 피험자수는 다음과 같다: 조건 A, 48명; 조건 B, 49명; 조건 C, 49명; 조건 D, 53명; 조건 E, 49명; 조건 F, 43명; 합계, 291명.

조사시기 및 방법

1991년 3월 강원대학생에게 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6종류의 조사가 만들어졌으며, 한 종류의 질문지는 6 자극조건 중에서 한 조건에 해당된다. 각각의 피험자는 한 종류의 질문지에만 답하도록 설계되었다.

결과 및 해석

영남인과 호남인이라는 자극어가 없이 Asch가 사용하였던 자극어를 제시하였을 때; 즉, “차갑다”와 “다정하다”는 중심효과의 결과가 각 반응 형용사 별로 표 1에서 제시된다.

Asch(1946)의 연구에서는 두 자극어 사이에 “신뢰롭다”(94% 대 99%)과 “중요하다”(88% 대 99%) 반응어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Schneider,

1) 조사시에 6개의 반응특성 중에서 happy(행복한)가 조사자의 과오로 누락되었다. 그래서 5개의 형용사 반응특성만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표 1> 영남인과 호남인의 자극조건이 없을 때, “따뜻하다(W)” “차갑다(C)”조건에 대한 인상형성

특 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비	F-확률
관대하다	2.37	1.21	268	23.12	0.000
	W : 2.72	1.23	131		
	C : 2.04	1.09	137		
현명하다	3.84	1.19	268	.75	.391
	W : 3.78	1.25	131		
	C : 3.90	1.14	137		
성질이 좋다	2.83	1.14	268	4.90	.028
	W : 2.99	1.17	131		
	C : 2.69	1.09	137		
신뢰롭다	3.54	1.25	268	10.28	.001
	W : 3.30	1.21	131		
	C : 3.78	1.25	137		
중요하다	3.52	1.16	268	.003	.952
	W : 3.53	1.13	131		
	C : 3.52	1.18	137		

Hastorf, Ellsworth, 1976. p.154), 본 연구에서는 “현명하다”와 “중요하다” 반응어에서 차이없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신뢰롭다”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5개의 반응특성 중에서 3개 ; 즉, “관대하다”, “신뢰롭다”, 그리고 “성질이 좋다” 반응어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만들고 있어서 대체로 “차갑다”와 “따뜻하다”는 조건이 중심특성(central trait)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차이 없었던 “현명하다” 반응어가 Asch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었고, Asch의 연구에서 차이가 없었던 “신뢰롭다” 반응어가 본 연구에서는 차이있는 결과를 보였다. 한국인은 “현명하다”는 언어보다는 오히려 “신뢰롭다”는 언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서 이진숙(1959)의 팔도인의 성격특성에서 한국 대학생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신뢰롭다”의 반대어, “간사하다”는 언어가 한국인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언어가 아주 중요한 성격특성 기술어임을 알 수

있다.

비영호남인이 비영호남인 즉, 자신들을 평가하는 결과 표를 아래에서 보게 된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표 2> 비영호남인의 비영호남인에 대한 “따뜻하다(W)”와 “차갑다(C)”조건에 의한 인상형성

특 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비	F-확률
관대하다	2.41	1.30	91	12.04	.001
	2.85	W : 1.17	46		
	1.95	C : 1.28	45		
현명하다	4.11	1.07	91	1.14	.237
	3.98	W : 1.14	46		
	4.24	C : .98	45		
성질이 좋다	2.87	1.04	91	4.21	.043
	3.09	W : 1.07	46		
	2.64	C : .98	45		
믿을만하다	3.97	1.10	91	2.66	.106
	3.78	W : 1.11	46		
	4.15	C : 1.06	45		
중요하다	3.83	1.04	91	.23	.631
	3.78	W : .96	46		
	3.89	C : 1.13	45		

를 합해서 분석했을 때와 다른 점은 “신뢰롭다”는 특성에서 “차갑다”와 “따뜻하다”는 자극어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신뢰롭다”는 언어는 성격특성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차갑다” 혹은 “따뜻하다”는 자극어가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기에 차이 없는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비영호남인이 영남인을 평가한 결과가 표 3에서 제시된다.

표 3에서 “관대하다”, “성질이 좋다”, 그리고 “신뢰롭다”라는 반응조건에서 “따뜻하다”와 “차갑다”의 자극조건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준다. 비영호남인이 비영호남인을 평가할 때는 “신뢰롭다”는 반응어에서

자극조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상도 사람”이라는 자극어가 첨가되었을 때, 자극조건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뜻하다”는 조건에서 보다는 “차갑다” 조건에서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에서 “따뜻하다”는 조건이나 혹은 “차갑다”는 조건 모두에서 “신뢰롭다”는 반응에 차이가 없었으나, 표 3에서와 같이 영남인이라는 자극어가 첨가되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기위주 편견 (self serving bias)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뒤의 표 5와 6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뢰롭다”는 반응에 있어서 “차갑다”는 조건이나 혹은 “따뜻하다”는 조건 모두에서 비영호남인이 자신들을 평가한 점수가 타지역 사람을 평가한 점수보다 높다. 다시 말하면, 비영호남인은 비영호남인에 대해서 타지역 사람보다 좋은 인상을 형성한다.

비영호남인이 호남인을 평가했을 때의 반응 결과표가 밑에 제시된다. 표 4에서 보듯이 “전라도인”이라는 자

<표 3> 비영호남인의 경상도인에 대한 “따뜻하다(W)”와 “차갑다(C)”조건에 대한 인상형성

특 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비	F-확률
관대하다	2.78	1.15	93	8.54	.004
	2.66	W : 1.04	41		
	1.98	C : 1.00	52		
현명하다	3.72	1.14	93	1.39	.241
	3.88	W : 1.12	41		
	3.60	C : 1.16	52		
성질이 좋다	2.92	1.20	93	3.83	.050
	3.19	W : .98	41		
	2.71	C : 1.31	52		
신뢰롭다	3.45	1.25	93	9.39	.003
	3.02	W : .98	41		
	3.79	C : 1.33	52		
중요하다	3.45	1.28	93	.79	.374
	3.58	W : 1.22	41		
	3.35	C : 1.32	52		

<표 3> 비영호남인의 전라도인에 대한 “따뜻하다(W)”와 “차갑다(C)”조건에 대한 인상형성

특 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비	F-확률
관대하다	2.69	1.33	84	3.01	.086
	W : 2.64	1.29	44		
	C : 2.20	.97	40		
현명하다	3.69	1.33	84	2.39	.125
	W : 3.48	1.44	44		
	C : 3.92	1.18	40		
성질이 좋다	2.70	1.17	84	.00	.986
	W : 2.70	1.37	44		
	C : 2.70	.91	40		
신뢰롭다	3.19	1.30	84	1.14	.287
	W : 3.04	1.36	44		
	C : 3.30	1.23	40		
중요하다	3.26	1.05	84	.27	.604
	W : 3.20	1.15	44		

극어가 제시되었을 때, 지금까지 보여주던 결과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어떤 반응특성도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런 결과는 “차갑다” 혹은 “따뜻하다”과 같은 자극어의 중심특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전라도인”이라는 자극어로 해서 초두효과 (primacy effect)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에서 보면, 비영호남인은 “따뜻하다”조건에서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모두를 똑같이 자신들보다는 신뢰롭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이나 경상도 사람과 비교해서 전라도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경상도 사람들이 “무뚝뚝하다”(이진숙, 1959), “경상도 사람은 생활력이 강하고, 결단성이 있으나 시끄럽다”(고흥화, 1989), “경상도 사람은 대체로 시끄럽고 의리있고 결단력이 있다”(김진국, 1977)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신뢰롭지 않다”는 성격기술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보여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은 영남사람의 정치, 경제, 군사 각 분야

<표 5> “따뜻하다(W)”조건에서 비영호남의 자신(G1), 경상도 사람(G2), 그리고 전라도 사람(G3)에 대한 인상형상비교

특성/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비	F-확률
관대하다	2.71	1.23	131	.398	.673
Group 1	2.85	1.17	46		
2	2.66	1.24	41		
3	2.64	1.30	44		
현명하다	3.78	1.25	131	2.01	.138
Group 1	3.96	1.14	46		
2	3.88	1.12	41		
3	3.48	1.44	44		
성질이 좋다	2.99	1.17	131	2.14	.121
Group 1	3.09	1.07	46		
2	3.19	.98	41		
3	2.70	1.37	44		
신뢰롭다	3.30	1.21	131	6.70	.002
Group 1	3.78	1.11	46	G 1 2 3	
2	3.02	.98	41	1	
3	3.04	1.36	44	2°	3°
중요하다	3.53	1.13	131	3.10	.048
Group 1	3.78	.96	46	G 1 2 3	
2	3.58	1.22	41	1	
3	3.20	1.15	44	3°	3°

* Scheffe 검증에 의한 집단간 차이

에서의 과잉점유로 해서 발생한 부정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실세는 경상도 사람이 차지한 위치의 중요성을 의미하므로 자신과 비슷한 수준에서 영남사람을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반면에 호남인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면, “차갑다”조건의 “현명하다”는 반응어에서 비영호남인들은 자신들과 비교해서 호남 사람을 같은 수준에서 그리고 영남사람을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뢰롭다” 반응어에서는 영남 사

<표 6> “차갑다”조건에서 비영호남인의 자신(G1), 영남인(G2), 그리고 호남인(G3)에 대한 인상형상비교

특성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비	F-확률
관대하다	2.03	1.09	137	.64	.528
Group 1	1.95	1.28	45		
2	1.98	1.00	52		
3	2.20	1.00	40		
현명하다	3.90	1.18	137	4.11	.018
Group 1	4.24	.98	45	G 1 2 3	
2	3.60	1.16	52	1	
3	3.92	1.18	40	2°	
성질이 좋다	2.68	1.40	137	.05	.952
Group 1	2.64	.98	45		
2	2.71	1.32	52		
3	2.70	.91	40		
신뢰롭다	3.78	1.25	137	4.61	.012
Group 1	4.15	1.06	45	G 1 2 3	
2	3.79	1.33	52	1	
3	3.30	1.23	40	2	3°
중요하다	3.51	1.18	137	3.41	.036
Group 1	3.89	1.13	45	G 1 2 3	
2	3.35	1.33	52	1	
3	3.32	.94	40	2°	3°

° Scheffe 검증에 의한 집단간 차이

람은 비영호남인 자신과 같이 신뢰롭다고 생각하며 호남 사람은 신뢰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진숙(1959), 고흥화(1989) 등의 연구결과 즉, 경상도 사람은 무뚝뚝하며 시끄럽고 전라도 사람은 간사하다는 것과 유사하다. “중요하다”는 반응어에 대한 응답에서는 영남인과 호남인 모두 중요하지 않다는 평가를 한다. “차갑다” 자극조건이 주어졌을 때, Asch(1946)의 연구에서는 자극인물에 대한 인상형성에서 재주있지만 이기적인 사람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경

상도 사람이라는 자극어가 주어졌을 때, 현명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된 것은 본래 무뚝뚝하고 시끄럽다는 감정에 “차갑다”라는 자극어가 첨가되어서 현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 론

지금까지의 지역감정 연구들은 대체로 영남인과 호남인 혹은 전라도 사람과 비영호남인과의 갈등을 조사하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상-분배의 관심을 가지고 비영호남인이 영남인과 호남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평이론(equity theory)에 비추어 볼 때, 영남과 호남의 갈등관계는 더 이상 양지역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호남지역이 영남지역에 비해서 낮은 보상을 받아왔지만 비영호남지역 사람 역시 낮은 보상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연구는 비영호남인들이 양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따뜻하다”와 “차갑다”는 자극어가 Asch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다른 자극어들과 같이 제시되었을 때, 두 자극어에 따라서 반응결과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다정하다”는 특성을 지칭받은 사람은 “차갑다”는 특성을 소유한 사람에 비해서 관대하고, 성질이 좋고,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경상도 사람이라는 자극어가 제시되었을 때, “따뜻하다”는 인적특성을 소유한 사람보다 “차갑다”는 인상을 받은 사람이 더 신뢰로운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전라도 사람이라는 자극어가 포함되었을 때, “차갑다”와 “따뜻하다”는 자극조건에 따라서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예, 이진숙, 1959; 고희화, 1976; 김진국, 1977)에서 보면, 경상도 사람이 무뚝뚝하고 솔직한 사람들로 평가되었으나 “따뜻하다”는 인적특성이 개입되었을 때는 오히려 전라도 사람과 같이 신뢰롭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차갑다”는 자극어가 주어졌을 때, 경상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신뢰롭다”고 평가하였으나 전라도 사람에게는 두 조건 모두에서 여전히 믿을만하지 않고 또한 중요하지 않다는 평가점수를 주었다.

Asch(1946)의 연구결과에서는 “따뜻하다”와 “차갑다”가 중심효과를 가질 때, “따뜻하다”는 특성을 갖는 사람이 “차갑다”는 특성을 갖는 사람보다 관대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성질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신뢰롭다(따뜻하다; 94% : 차갑다; 99%)”와 “중요하다(따뜻하다; 88% : 차갑다; 99%)”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차갑다”는 자극어가 주어졌을 때보다 “따뜻하다”는 자극어가 주어졌을 때 평가인물이 더 관대하고, 성질이 좋고 그리고 신뢰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주었지만 “현명하다”와 “중요하다”는 특성에서는 “따뜻하다”와 “차갑다”는 조건에 따라서 차이 없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Asch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따뜻하다”는 특성을 소유한 사람이 “차갑다”는 특성을 갖는 사람보다 관대하고 성질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Asch의 연구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던 “신뢰롭다”는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따뜻하다”보다 “차갑다”는 특성이 주어졌을 때 평가인물은 “신뢰롭다”는 특성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영남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다. 대체로 영남인은 “시끄럽고, 의리있고, 결단력이 있다”(예, 김진국, 1977)고 인식되어 왔으나, 경상도 사람에게 “따뜻하다”는 특성이 주어졌을 때, 신뢰롭지 못한 사람으로, 그리고 “차갑다”는 자극특성이 포함되었을 때, 현명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신뢰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관심을 모은다.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아서 예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의 해석은 Gamson의 최소자원 이론에 근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남세는 호남은 물론 다른 지역이 받을 보상을 더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영남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다고 보게 된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이 영호남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과 나머지 전지역간의 문제라고 언급하여서(안병영, 1989),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호남인에 대하여 공통점을 갖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영남, 호남,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집단간 갈등은 모든 수준의 사회조직에서 일어난다”(홍성열 역,

1991, p.446)고 보아서 영, 호남, 그리고 여타 지역의 갈등이 존재함을 당연시할 수 있고 갈등은 사회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Turner, 1974; Coser, 1959),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선거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지역간의 편견이 지나치게 두드러져서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협조집단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어느 경우든지 집단구성원 상호간에 매력을 느끼지만, 갈등집단은 실패했을 때 같은 집단구성원간에 매력도에서 협조집단보다 훨씬 떨어진다(Worcher, Andreoli, & Folger, 1977). 더욱이 “실패집단은 적대감과 배제로 응수할 수 있으나, 성공집단은 여전히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을 대인관계 면에서 기꺼히 받아 들인다. 결국 승리자는 자비로움을 베풀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다른 팀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홍성열 역, 1991, p. 44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이 사회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발전이 늦어진다고 인식될 때, 지역간 부정적 감정은 더 악화될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역간 갈등은 “망국”으로까지 표현되었다(월간중앙, 1988년 6월호, pp. 383-384). 결국 우리나라의 지역간 갈등은 국가를 위기에 몰고 갈 수 있고 따라서 갈등상황에 있는 각 지역은 더 심한 갈등을 부를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가 수집된 것은 1991년 초이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문명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감정의 해소, 사회개혁이 설사이 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1993년이므로 2년이라는 기간과 사회적 변화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사회현상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한번 형성된 태도는 주위의 변화에 저항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가변적 취급될 수 만은 없다. 본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규모 조사이므로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데도 무리가 있으므로 영남인에 대한 비영남인의 부정적 감정이 확실한 고정관념으로 정착되었는지 보다 주의 깊은 연구가 시행되어야겠다.

참고문헌

고홍화(1989).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서

울: 성원사.

- 김진국(1977). 한국대학생의 지역적 편견연구, 전국대학생 학술연구논문집: 사회과학분야, 2, 11-40.
- 김진국(1984). 지역민간의 편견적 태도연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6, 103-130.
- 김만홍(1987). 한국사회 지역갈등연구: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
- 김태오(1950). 민족심리학, 서울: 동방문화사
- 민경환(1988). 집단간 갈등-그 병리의 이해와 처방,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한국심리학회 편) 91-122, 서울: 성원사.
- 이진숙(1959). 8도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선입관념, 사상계, 12, 74-87.
- 안병영(1988). 풀어야 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 신동아, 1, 364-371.
- 신동아(1988), 1월호, pp.296-297.
- 월간중앙(1988), 2월호.
- 홍성열 역(1991). 집단역학(Donelson R. Forsyth, An Introduction to Group Dynamics, 1983), 서울: 양서원.
- Asch, S.E(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Coser, L.A.(1959).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Glencone., ILL: Free Press.
- Forsyth, D.R.(1983). *Introduction to Group Dynamics*, Monterey, CA: Brooks/Cole Publishing Co.
- Gamson, W.A.(1961). A theory of coalition form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s*, 26, 373-382.
- Gurr, T.R.(1971). *Why men rebel*,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x, C., & Engels, F(1947). *The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
- Schneider, D.J., Hastorf, A. H., & Ellsworth, P. C.(1976). *Person Perception(2nd ed.)*, CA.: Addison-Wesley Pub.
- Simmel, G.(1955). *Conflict*, Glenoe, Ill: Free Press.

- Tajfel, H., &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ology of Intergroup Conflict*. Monterey, Ca.: Brooks/Cole.
- Turner, J.M. (1974).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Homewood, Ill.: Dorsey.
- Walster, E., Walster, G. W., & Berscheid, E.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London: Allyn & Bacon.
- Worchel, S., Andreoli, V. A., & Folger, R. (1977). Intergroup cooperation and intergroup attraction and outcome of combined effort, *J.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131-140.

The Non-Young/Homan People(NYHP)'s Impression Formation for the Youngnam/Homan People

Sung-Youl 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conflict between the Youngnam and the Honam district has been one of seriously social problems that bans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 In addition to such conflict, another conflict seems to be formed newly in the nation because people of other areas except for the Youngnam and Honam districts are likely to see the Youngnam district with an unusual view. On the basis of equity theory, all the people want to have such a share as they work, but people from the Youngnam district are thought to have more allotment in politics, economy, army, etc. compared with people from other area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NYHP's impression formation toward Youngnam people including the Honam. The reason why the Honam is included in such a view is that the two areas(the Young and Honam) have been confronted for a long time. For the study,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which Asch (1946) used in his experiment were included-stimuli characteristics : intelligent, skillful, industrious, warm (cold), determine, practical, cautious and responses characteristics : generous, wise, good-nature, reliable, important. As well, the stimuli, Youngnam and Honam people were included at the first in the list of stimulus characteristics. Each of subjects was given and responded to one of six conditions, a combination of the Youngnam persons, Homan people or the NYHP with warm/cold. The NYHP, 268 of the total subject, 291 are analyzed, by group survey, in the study. In the "warm" condition, the NYHP sees the Young/Homan people unreliable and the Homan persons unimportant. Also, in the "cold" condition, they views the Youngnam persons are unwise and the Homan people unreliable. They consider people from Youngnam and Homan districts unimportant compared to themselves. The main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 Youngnam people who have been viewed as relatively reliable ones are evaluated untrust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impression judgment in Koreans. In Experiment1, subjects examined photographs of a man and a woman whose face was either highly attractive, moderately attractive or unattractive. Subjects then evaluated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role effectiveness of the target person in family and job situations, and indicated the degree with which subjects will be satisfied at the possible relationship with the target person as a friend, employee, date and marital partner.